

## FTA와 충북경제의 기회



한국무역협회 충북지부장 이 재 출

한미FTA의 성공적인 타결에 이어 한EU간 FTA협상이 진행되면서 거대경제권과의 본격적인 FTA시대가 열리고 있다. 경제정책은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시행여부를 결정하지만, 손실을 감수하고 강행하는 개인 차원의 투자결정과는 달리 정책수행의 결과 손실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통해 이를 보전해 줌으로써 국민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FTA도 마찬가지로 상호시장의 개방을 통해 이해득실이 발생하지만 결국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윈윈게임이다. 당사국이 산업구조 조정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피해부문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단순한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섬(Positive Sum)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FTA에 대해 반대입장을 가진 측에서도 FTA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한미FTA의 타결 전까지 수많은 반대의견의 표출이 있었고 또 이것이 협상결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는 정책결정과정상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정치적 목적의 반대를 위한 명분으로 FTA를 악용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는 한미FTA의 제반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국회비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며,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함으로써 1년 동안의 타결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FTA는 흔히 고속도로에 비유된다.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가로막아, 마치 국도에서 신호등에 걸리고 검문검색에 응하느라 제 속도를 내지 못하여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힘이 겨운 것과 같다. 모든 국가가 동일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어느 한 국가가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질주하여 우리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고속도로를 만들고 이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우리 제품을 실어 나르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한미FTA의 효과는 타결 이후 각국이 보인 반응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일본 언론들은 자국정부의 나태를 질책하였고 중국은 총리가 방한한 자리에서 한중FTA의 조속한 추진을 제안하

였으며, EU는 곧 바로 한국과 FTA협상을 개시했다. FTA로 인한 세계교역량이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FTA 고아가 되지 않기 위해 칠레, 싱가포르, EFTA 및 아세안 등과 전초전을 가진 후, 바로 미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여 1년만에 타결하고 EU와 협상을 시작한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외경제정책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을 만 하다.

블루오션은 거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미개척 시장이며, 기업이 고수익, 고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의미하는데 FTA는 우리가 기필코 선점해야 할 블루오션이다. 많은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은 20세기 무역자유화의 최대수혜자는 바로 한국이라는 점에 대부분 동의한다. 실제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구한 개도국과 폐쇄적인 정책을 추구한 개도국 사이의 성장률 격차가 무려 다섯 배를 넘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개방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무분별한 개방으로 인해 자국의 유치 산업이 붕괴되어 수입품 천국이 된 사례도 많다. 개방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국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 사실 한국이야말로 개방의 혜택을 보았다기 보다는 개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 국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과거 유통시장 개방 당시 우리 산업도 대만과 같이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유통기업인 월마트와 까르푸가 토종 유통업체들에게 경쟁에서 밀려 철수해 버린 사례는 개방에 대한 우리 경제의 강력한 적응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충북은 농업비중이 전국평균에 비해 높아 전통적인 농업도로 인식되어 옴으로써 FTA로 인한 피해의식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경제특별도를 충북도약의 기치로 내걸고 3%경제를 4%경제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은 제조업부문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농업부문도 과거 개방에 대한 피해만 강조하는 수세적인 입장을 벗어나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농산물과 경쟁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외국제품과 차별화된 품종을 개발하여 판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면 해외시장에서도 얼마든지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영동의 포도클러스터 같은 성공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명품농산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농가와 기초 지자체가 합심하여 노력하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

이제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거침없이 달릴 자동차가 필요하다. 고속도로에도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최저속도제한이 있다.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어 놓고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FTA라는 고속도로를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충북기업과 농민들은 엔진과 각종 장치를 재점검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스피드업을 해 나가야겠다.